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심화 연구-  
농산물 가공

허 장 선 임 연구 위원  
조 한 슬 한국국제협력단

**연구 담당**

|       |             |         |
|-------|-------------|---------|
| 허 장   | 선 임 연 구 위 원 | 총괄 및 집필 |
| 조 한 슬 | 한국국제협력단     | 집필      |

## 차 례

---

### 제1장 개요

- 1. 농산물가공의 의의 ..... 1
- 2. 시기구분 ..... 2

### 제2장 한국의 정책경험

- 1. 농어촌부업단지육성사업(1960년대) ..... 5
  - 1.1. 배경 ..... 5
  - 1.2. 추진방법 ..... 5
  - 1.3. 추진경과 및 성과 ..... 6
  - 1.4. 특징 ..... 7
- 2. 새마을공장건설사업(1972~1983) ..... 7
  - 2.1. 배경 ..... 7
  - 2.2. 추진경과 ..... 8
  - 2.3. 추진성과 ..... 9
  - 2.4. 특징 ..... 9
- 3. 농공단지 개발사업(1983~1989) ..... 10
  - 3.1. 개요 혹은 배경 ..... 10
  - 3.2. 추진경과 및 성과 ..... 10
  - 3.3. 특징 ..... 11

|                                 |    |
|---------------------------------|----|
| 4.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 .....           | 13 |
| 4.1. 배경 .....                   | 13 |
| 4.2. 추진과정 .....                 | 13 |
| 4.3. 관련법령 .....                 | 15 |
| 4.4. 추진경과 및 성과 .....            | 16 |
| 4.5. 기타 각종 지원제도 .....           | 18 |
| 5. 쌀 가공 지원(미곡종합처리장 건설 지원) ..... | 20 |
| 5.1. 배경 .....                   | 20 |
| 5.2. 추진내용 .....                 | 20 |
| 5.3. 추진경과 및 성과 .....            | 21 |
| 5.4. 문제점 및 함의 .....             | 22 |

### 제3장 국제개발협력 사례 : 필리핀 미곡종합처리장(RPC) 건설사업

|                         |    |
|-------------------------|----|
| 1. 개요 .....             | 25 |
| 2. 사업추진 배경 및 추진경위 ..... | 27 |
| 3. 세부 사업내용 및 경과 .....   | 28 |
| 4. 사업성과 .....           | 31 |
| 5. 소결 .....             | 33 |

### 제4장 개도국 적용을 위한 착안점

|                                          |    |
|------------------------------------------|----|
| 1. 개도국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의 중요성 파악 .....         | 37 |
| 2.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요인들 .....              | 38 |
| 3.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         | 42 |
| 4. 국내 전후방 연계효과의 극대화로 경제·사회적 발전을 선도 ..... | 43 |
| 5. 가공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        | 45 |

|             |    |
|-------------|----|
| 참고 문헌 ..... | 47 |
|-------------|----|

## 표 차례

---

### 제2장

|                               |    |
|-------------------------------|----|
| 표 2-1.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성과 .....  | 12 |
| 표 2-2.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정책의 개요 ..... | 15 |

### 제3장

|                                       |    |
|---------------------------------------|----|
| 표 3-1. 필리핀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사업 주요 추진경과 ..... | 29 |
| 표 3-2. RPC 주요설비의 설계기준 및 공여 기자재 .....  | 30 |

### 제4장

|                                    |    |
|------------------------------------|----|
| 표 4-1. 농산물가공사업의 의의 .....           | 38 |
| 표 4-2. 농산물가공업에서의 기본적 고려사항 .....    | 40 |
| 표 4-3. 운영주체별 유리성과 불리성 .....        | 41 |
| 표 4-4. 전통식품 가공업과 농산물 가공업의 차이 ..... | 46 |

## 그림 차례

---

### 제2장

|                                |    |
|--------------------------------|----|
| 그림 2-1. 쌀 산업과 경영체의 발전 모형 ..... | 22 |
|--------------------------------|----|

### 제3장

|                      |    |
|----------------------|----|
| 그림 3-1. 사업대상지역 ..... | 26 |
|----------------------|----|

### 제4장

|                            |    |
|----------------------------|----|
| 그림 4-1. 쌀 가공산업의 연계구조 ..... | 44 |
|----------------------------|----|

# 제 1 장

---

## 개 요

### 1. 농산물가공의 의의

- 농산물가공산업의 발전에 대하여 이동필(1999: 2168)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 첫째,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유발수요의 창출과 원료농산물의 가격지지를 통해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 둘째, 대부분의 가공업체가 원료산지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유흥인력 고용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 셋째, 수요 측면에서도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생활패턴이 달라지면서 가공식품과 외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농산물가공을 통해 이를 충족시키고 있다. 특히 가공을 통해 맛과 향이 좋은 새로운 식품을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장기간을 조절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다양한 식품소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원료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새로운 가치, 즉 부가가치를 만들어냄으로써

1차 혹은 고차의 가공을 담당하는 농기업체에게도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 2. 시기구분

- 우리나라의 농산물가공과 식품정책은 안전성과 위생관리를 중심으로 감시하고 규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발전과정을 주요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 첫 번째 시기(1960년대) : 농어촌부업단지육성사업
  - 1960년에 가내수공업 형태의 특산단지 육성사업에 식품을 포함하면서부터 농산물가공에 대한 정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식품산업 또는 농산물가공 사업이라고 분류하기에는 사업체의 성격이나 규모가 부족하였다(이동필 1999: 2168).
- 두 번째 시기(1973~1983) : 새마을공장건설사업
  - 1973년부터는 새마을공장건설사업의 일환으로 가공공장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강수기 외 2000: 5).
- 세 번째 시기(1983~1989) : 농공단지 및 관광농원개발사업
  - 제한적인 범위이기는 하지만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정책화된 것은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 추진한 ‘산지복합가공공장건설사업’이 사실상 처음이다(이동필 1999: 2168).



- 네 번째 시기(1989~) :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
  - 1980년대 말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업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동시에 농산물가공이나 식품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1989년부터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전통식품 개발사업과 산지계열별 가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했다(이동필 1999: 2170).



## 제 2 장

---

### 한국의 정책경험

#### 1. 농어촌부업단지육성사업(1960년대)

##### 1.1. 배경

- 1960년대 우리나라의 농업은 쌀과 보리를 중심으로 한 농업생산 구조로, 자급용 식량 위주의 생산에 따라 상업 혹은 환금작물 재배 규모가 매우 작고 농업소득 확보가 제한적인 영세소농경형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계절적 편차가 큰 노동수요의 구조 등으로 인해 다수의 계절적 실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이었다(이동필 1999: 2137). 이러한 농가의 농업 소득 제한과 계절적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농어촌부업단지육성사업’이라는 농한기생산화사업이 시작되었다.

##### 1.2. 추진방법

- 이 시기의 농산물가공 관련 정책 및 사업은 농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가공생산, 임산물이나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생활필수품을 제작하는 등

농촌지역에서 유희자원을 활용하여 농가의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동이 추진되었다.

### 1.3. 추진경과 및 성과

- 1968년 농어촌부업단지 육성사업에 착수하기 이전에는 1963~1965년 농협이 추진한 농촌가내공업육성 사업, 1965년부터는 농림부에 의한 자립안정농가조성사업, 농촌진흥청의 지도사업, 농업협동조합의 새농민운동 사업 등이 있었다. 사업 내용으로는 가마니 짜기나 새끼 꼬기 등과 가내공업, 연초, 양잠 등 농한기에 주로 가구단위에서 농업 부산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생산하는 사업들이 추진되었다(이동필 1999: 2136).
- 1968~1971년 제1차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 기간에 위탁가공이나 수공업 등 농외사업을 중심으로 농가 부업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는 농촌지역에 풍부한 노동력과 농업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겸업이나 부업소득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었다.
  - 쌀 농사 이외에 농업부산물 가공, 소규모 과수, 약초, 화훼 재배, 임산물 등을 활용한 생필품 제작, 양봉, 중·소 가축 사육 등의 사업이 실시되었다(이동필 1999: 2137).
  - 마을단위로 부업단지를 지정, 조성하여 자금과 기술, 경영지도를 하였다. 농협에서는 “농가부업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소요자금 지원, 원료 및 기계 구매 알선, 기술 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을 시행하였다(이동필 1999: 2142).
  - 농어촌부업단지는 1972년까지 545개가 지정·육성되었다(이동필 1999: 2143).
- 1989년에는 “농어촌특산단지”로 개명되면서 음·식료품 관련 업체는 전

통식품 개발사업으로 편입되었고 나머지는 민속공예품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이동필 1999: 2144).

## 14. 특징

- 가내수공업 형태의 부업단지 육성사업에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농산물가공을 포함함으로써 가공 관련 지원정책이 최초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농가의 부업경영에 의한 소규모 가공사업을 지원, 추진해왔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식품산업 또는 농산물가공사업이라고 분류하기에는 사업체의 성격이나 규모가 적절하지 않았다(이동필 1999: 2137, 2168).
- 그러나 농가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기술·경영 기법을 체득하는 기회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동필 1999: 2145).

## 2. 새마을공장건설사업(1972~1983)

### 2.1. 배경

- 새마을공장건설사업은 제2차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사업으로 ①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를 통해 새마을 운동의 경제적 기반 조성, ② 공업의 지방분산화와 농촌의 잠재실업 해소로 ‘농공병진’ 구현, ③ 도시와 농촌 간의 성장격차 해소, ④ 지역사회발전 촉진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이동필 1999: 2138).

- 새마을공장건설사업은 1967년 말 박정희 대통령이 지방장관회의에서 제시한 ‘농공병진’ 정책에 따라 실시된 사업이다. 농공병진 정책이란 ‘지방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공, 처리함으로써 공업제품화하여 이것을 국내시장에 팔거나 해외시장에 수출해서 공업을 발전시키고, 그와 관련된 원료를 생산하는 농어민의 소득도 올려서 농업과 공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게 하자’는 정책이었다(이동필 1999: 2138).

## 2.2. 추진경과

- 새마을공장건설사업은 1개면 1개 공장 이상 건설을 목표로 공장 입지조건이 갖추어진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지역 내에서 원료조달이 가능하고 노동집약적이며 계열화가 가능한 업종의 공장을 우선적으로 건설, 지역적 여건과 원료생산 및 산업 간의 관련 효과를 종합, 조정하면서 추진하였다. 또한 경영과 기술 및 판로면에서 경쟁력을 구비한 건설한 업체를 새마을공장으로 지정하였다(이동필 1999: 2138).
- 새마을공장의 업종에는 ① 농촌에서 직접 원료조달이 가능한 업종으로 식품공업, 목제품공업, 석공업, 요업, 직물가공업 등, ② 생산공정이 단순하고 노동집약적인 업종으로 섬유공업, 잡화공업, 합성수지가공, 유리제품업 등, ③ 대공장과 계열화가 가능한 업종으로 금속 및 기계기구공업, 각종 부품공업, 전자공업 등, ④ 기타 농촌소득증대가 가능한 업종 등이 있다. 대체로 노동집약적인 품목과 고용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업종 및 지방특화적인 업종이 대종을 이루고 있었다(윤동선, 『새마을공장』 제5호, 38~40쪽, 1973. 12.; 이동필 1999: 2158에서 재인용).
- 새마을공장에 대해서는 연리 10%의 시설자금(3년 거치 5년 상환) 및 운영자금(1년 거치 2년 상환)을 지원하였다. 취득세는 면제하고, 재산세는

1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하였다(이동필 1999: 2158).

### 2.3. 추진성과

- 1973년부터 새마을공장건설사업의 일환으로 가공공장 사업이 시작되고 1983년까지 1,357개의 새마을공장을 지정하였다. 이 사업이 종료된 1985년까지 남아 있던 공장은 675개로, 상공부의 ‘중소기업육성사업’으로 흡수되었다(이동필 1999: 2158; 강수기 외 2000: 5).
- 그러나 경기도 등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에 입지한 새마을공장이 많아서 도시중심 공업개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이동필 1999: 2158).
  - 1980년대 중반 도청소재지 등 중심지에 지방공단조성사업이 타부처 주관으로 시행되면서 우량 새마을공장이나 입주업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농업소득의 한계를 농외소득으로 극복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기조가 변화하였다(이동필 1999: 2139).
  - 이에 따라 먼 단위 이하에서의 소규모 공장단위보다는 군 단위 이상에서의 단지화된 농촌공업의 육성(농공단지 개발정책)이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 2.4. 특징

- 새마을공장건설사업은 농산물가공 사업의 측면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종료된 사업이지만, 농외소득 개발을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최초의 농촌공업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3. 농공단지 개발사업(1983~1989)

#### 3.1. 개요 혹은 배경

- 우리나라 농업경영 규모의 영세성, 외국 농산물의 수입 확대 불가피성 등으로 농업소득의 감소문제를 농업소득의 증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농업소득 한계론이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농공단지개발과 관광농원 조성 등 농외소득원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1980년대 초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농외소득 개발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① 미국 및 맥류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던 농가의 소득원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우리나라의 경우 호당 1ha 정도로 농업경영 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서 농업생산성의 획기적인 증대가 어렵다는 점, ③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을 유지하기도 어려워, 현실적으로 농업소득 증대의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④ 계절적 실업 등으로 농촌지역의 유향노동력과 기타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이동필 1999: 2139).
- 농외소득정책은 농촌지역의 노동력, 토지 및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올린다는 정책으로, 고도성장 과정에서 야기된 산업 간 및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 3.2. 추진경과 및 성과

-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1967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농어촌부업단지개발사업과 1984년부터 새로이 도입한 농공단지 및 관광농원개발 등 농외소득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이동필 1999: 2139-2140).

- 농공단지 개발사업은 농촌지역에 정부가 부지를 조성하고 공장용지의 저렴한 제공, 각종 세제 및 금융, 행정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에 공업을 유치함으로써 농업 외 부문으로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농외소득을 높이고, 지자체로서는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농림부 1997: 430).
  - 1984~1985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전국에 확대되었고, 2004년까지 전국에 400개소를 조성한다는 목표도 설정되었다. 실제로는 1997년까지 288개 단지가 농공단지로 지정되었다. 또한 단지 내 분양률도 95%에 달하였다(농림부 1997: 431, 435).
  - 시설자금은 70% 또는 3억원 내에서, 운영자금은 70% 또는 1억 원 내에서 시중금리보다 낮게 융자 지원하였다. 재산세 1년간 전액 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 등 혜택도 있었다(농림부 1997: 432).

### 3.3. 특징

- 농공단지 개발사업은 새마을공장사업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사항, 즉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개발방식이었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농외소득개발에 접근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농림부 1999: 2139).
- 그러나 성과달성이 어려웠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되고 있다.
  - 지역경제와 연계성이 부족한 외지의 기업이나 사업체를 무리하게 유

치함으로써 입지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이들 업체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웠다. 지역의 부존자원과 지역주민의 단순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의 업체는 15%에 불과하였다(농림부 1997: 436).

- 1980년대 말부터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노동력 확보난을 겪게 된 이후 농공단지의 노동력과 농업 부문 노동력 사이의 경합관계가 발생하면서 농민 등 농촌주민의 공장취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농공단지에 취업한 인구 중 농가의 가구원은 28%이어서, 농가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하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농림부 1997: 437).
- 또한 대도시 및 수도권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서 물류 등 교통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이 입지로서의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농림부 1997: 430).
- 이들 정책의 저조한 성과로 인해 외부이식 방식에 의한 농외소득개발에 대한 한계론 내지 회의론이 대두되었다.

표 2-1.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성과

| 구 분         | 단지수   | 지정면적    | 가동업체수   | 현지인<br>고용 인원 | 외지인<br>고용인원 |
|-------------|-------|---------|---------|--------------|-------------|
| 1998년<br>현재 | 295개소 | 4,469ha | 2,463개소 | 58,716명      | 29,419명     |

자료: 농림부 농촌정비과(1998); 이동필(1999: 2165-2166)에서 재인용.

## 4.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

### 4.1. 배경

- 1980년대 말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업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동시에, 농산물가공이나 식품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것이 1989년부터 착수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이다(이동필 1999: 2169).
- 또한 이 사업은 1980년대의 농공단지 개발사업이 농산물 등 지역으로부터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외부 사업체를 유치하는 데 치중함으로써 지역을 위한 개발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정책적 교훈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농민(생산자단체 포함) 또는 일반 기업체가 원료농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수요창출과 함께 수급조절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이동필 1999: 2169).
- 시대적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이상으로 늘어나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취업 등으로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해마다 10~15%씩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부합하기 위하여 가공산업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농림부 1997: 174-175).

### 4.2. 추진과정

- 1989년부터 농림부가 추진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에는 ‘전통식품개발사업’과 ‘산지계열별 가공산업 육성사업’이 있다.

- 대상품목은 ① 국내산 농수산물로서 인근에서 원료확보가 용이하며 복합가공에 의해 가동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품목이나 국내 증산 잠재력이 높은 부존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품목, ② 농한기의 유희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 ③ 현지에서 기술인력 및 노동력 확보가 용이한 품목, ④ 부가가치가 높고 소규모 생산으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품목, ⑤ 초기 시설투자비가 적고 단계적으로 확충이 가능한 품목, 그리고 ⑥ 위생적인 유통 및 소비가 가능하고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품목 등이다(이동필 1999: 2170).
- 전통식품개발사업은 ‘국내산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어가의 소득원 개발과 성출하기 원료농산물의 수매, 가공처리로 가격안정 도모 및 고유한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과 식문화의 서구화를 억제’(이동필 1999: 2170)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5호 이상 농가가 공동으로, 혹은 생산자단체가 국내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업을 하는 경우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 우리 고유의 맛, 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대상으로 정부의 인정을 받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다(농림부 1997: 175).
  - 생산자 단체의 경우 1억 5,000만 원, 농가 공동은 1억 2,000만 원(보조 50%, 단 융자 조건은 연리 5%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한도 내에서 건물 및 기계설비를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해준다. 또한 저온저장시설에 소요되는 자금과 단기 원료구입자금에 대한 융자금 지원도 있다(이동필 1999: 2170-2171).
- 산지계열별 가공산업 육성사업의 목적은 ① 국내산 원료농산물의 신규 수요와 부가가치 제고, ② 원료농산물의 가공처리로 가격 안정, ③ 가공공장 취업증대, 이를 통한 ④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
  - 이를 위해 농어촌지역의 농수산물가공업체나 농어민 생산자단체를

- 대상으로 지원업체를 선정하여 시설 및 원료구입 자금을 지원한다(농림부 1997: 175).
- 시설자금으로는 10억 원 한도 내에서 생산자단체는 50% 보조, 30% 융자(연리 5%, 3년 거치 7년 상환), 일반업체는 소요자금의 70% 범위 내에서 연리 8%(3년 거치 7년 상환)로 융자해주고 있다.
  - 또한 원료구입 자금으로는 생산자단체는 연리 5%, 일반업체는 연리 8%로 3억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융자 지원한다(이동필 1999: 2171).

표 2-2.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정책의 개요(1998)

| 구 분   | 전통식품개발사업                                                                                                                                                 | 산지계열별가공산업육성사업                                                                                                              |
|-------|----------------------------------------------------------------------------------------------------------------------------------------------------------|----------------------------------------------------------------------------------------------------------------------------|
| 사업 대상 | ○ 마을공동(농어가 5호 이상)<br>○ 생산자 단체                                                                                                                            | ○ 생산자단체<br>○ 산지 일반업체                                                                                                       |
| 지원 규모 | ○ 시설비<br>- 마을공동 : 1억 2,000만 원<br>- 생산자단체 : 1억 5,000만 원 (50% 보조, 30% 융자, 20% 자부담)<br>- 연리 5%, 3년 거치, 7년 상환<br>○ 포장개선비<br>- 3,000만 원 (연리 5%, 1년 거치, 4년 상환) | ○ 시설비<br>- 생산자단체 : 10억 원 (50% 보조, 30% 융자, 20% 자부담, 연리 5%, 3년 거치, 7년 상환)<br>- 일반업체 : 10억 원 (70% 이내 융자, 연리 8%, 3년 거치, 7년 상환) |

자료: 이동필(1999: 2171).

- 농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989~2004년까지 2,000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 추진되었다(농림부 1997: 176).

#### 4.3. 관련법령

- 1970~1980년대 농어촌특산단지, 새마을가공공장 사업 등을 통해 농산물 가공공장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사업의 지

속적인 지원이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농업인들의 가공산업 참여가 제한되었다.

- 농산물가공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마련된 것은 1993년이다. 농산물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 가공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1989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래, 1993년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이동필 1999: 2171-2172).
- 이 법의 주요내용은 ① 전통식품 가공산업의 육성, ② 전통식품 명인제도의 실시, ③ 전통식품의 표준규격화, ④ 특산물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제 실시, ⑤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제 실시 등이다.

#### 4.4. 추진경과 및 성과

-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노동력 부족과 노임 상승, 경영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부실업체 발생을 방지하고자 신규 사업 지원보다는 원료구입비 등 운영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 1998년 말까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에 지원된 금액은 총 4,915억 원이다(이동필 1999: 2173-2174).
  - 1,395개소의 가공공장에 시설비 3,118억 원을 지원하였다. 종류별로는 전통식품업체 1,086개소, 산지일반가공업체 309개소에 지원하였다. 1,101개 업체에게 포장개선비, 2,509개 업체에 원료구입자금을 지원하였다.
- 동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수산물가공공장은 농가의 부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가내수공업에서 기업형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 가내수공업형이란 산채, 메주 등을 생산하는 특산단지로 연중 3개월 미만으로 가동을 하며, 연간매출액도 1억 원 미만인 업체로, 전체 정부지원 농산물가공공장의 30%이다.
  - 공장형은 김치, 한과 등 전통식품 또는 농산물을 가공하며, 연간매출액 1억~10억 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는 곳이다. 40%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 기업형은 전체 농산물가공공장의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연중 가동되는 자동화시설에 의해 주스나 음료 등을 생산, 연간 10억~3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얻고 있는 규모의 공장이 해당된다(이동필 1999: 2174-2175).
- 정부의 지원에 따라 농산물가공업체의 전체 매출액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 1993년의 2,987억 원에서 1994년에는 3,870억 원으로, 1996년과 1997년에는 각기 4,533억 원 및 4,971억 원으로 늘어났다(이동필 1999: 2174-2175). 1996년 매출액 규모는 전체 식음료산업 매출액의 2%를 차지하는 규모였다(농림부 1997: 177).
- 1998년 가공산업육성에 관한 정책을 일부 정비하였다(이동필 1999: 2177-2178).
- 첫째, 신규업체를 지정할 때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였다. 지역 특성에 따른 전국적인 배치계획과 품목별 수급 여건을 고려함으로써, 유사·동일품목을 과다하게 건설하여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부실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사업타당성 평가 시 ‘제품의 시장성’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 둘째, 정부지원 가공공장 중 한계기업체에 대해서는 퇴출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 셋째, 필요 시 원료수매자금 추가지원, 사용기간 연장 등을 실시하고,

원가절감을 위해 계약재배를 통한 원료를 조달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기술경영컨설팅팀’을 구성하여 업체별 경영활성화 방안을 자문하였다.

- 넷째, 산지가공업체 등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촉진 및 홍보지원을 강화하였다.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서의 판매, 대형 백화점과 판매제휴, 지역특산물 판매장에서의 판매 등 유통망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였다.
- 다섯째,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신규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관하였다. 또한 전통가공식품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 중 일부는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세율인하 등 혜택을 주었다.

#### 4.5. 기타 각종 지원제도

- 전통식품의 품질향상, 생산 장려,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를 실시하였다(이동필 1999: 2172).
  -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여 전통식품의 상품성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이 제도는 서구 식품에 밀려 점차 사라져 가는 우리 전통식 문화를 계속 발전시킴으로써 농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다.
  - 인증 대상품목은 ①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② 전통적인 방법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조, 가공되고, ③ 예로부터 전승된 우리 고유의 맛과 향을 내는 식품 중 농림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것들이다.
  - 제품, 포장, 용기 등에 품질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8년 말까지 20개 품목 114개 업체가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로 등록되었다.



- 전통식품의 계승, 발전과 가공 기능인의 명예를 위하여 ‘전통식품 명인제도’를 실시하였다(이동필 1999: 2172).
  - 명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① 당해 전통식품의 조리, 가공업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② 조상 전래의 특별한 조리, 가공법을 원형 그대로 체득, 보전하고, ③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를 농림부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 1998년 말까지 주류 부문에 14명, 일반 식품제조 부문에 1명 등 15명을 지정하였다.
  
- 가공식품의 품질향상이나 생산기술 혁신을 통하여 품질 고급화, 생산 효율화, 거래의 단순, 공정화로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KS표시품목’을 지정하였다(이동필 1999: 2172).
  -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국내 식품 규격, 국내 기술 수준, 국제식품 규격(Codex) 등을 기초로 전문가 회의를 거쳐 규격안을 마련하고 ‘산업표준심의회 식료품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하였다.
  - 1998년까지 119개 품목에 대하여 식품 규격을 제정하였다.
  
- 가공식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하였다(이동필 1999: 2172-2173).
  - 「농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1996.12.16.)에 의거, 일부 품목(과자류, 유가공품, 병·통조림, 묵류, 면류, 차류, 인삼제품류 등)에 대하여 가공업자가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강제하였다.

## 5. 쌀 가공 지원(미곡종합처리장 건설 지원)

### 5.1. 배경

-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RPC)은 벼 주산지 현지에서 벼의 수집과 건조, 가공, 포장, 그리고 브랜드화하여 판매까지 종합적, 일관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물이다.
  - RPC를 통해 일관처리하는 경우 34%의 비용 절감과 5% 정도의 양곡 손실을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한다(박동규 외 2003: 14).
- 이미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지속적인 쌀 자급을 확립하였고, 1988~1992년의 연이은 쌀 풍작과 소비량 감소, 수매량 및 재고량 증가에 따른 관리비용과 양곡관리기금 적자의 누적 등으로 양곡관리제도상의 개혁(양정개혁)이 시행되었다(농림부 1997: 216). 이러한 배경과 아울러 양질미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RPC를 통해 고품질 특산미를 가공, 다양한 규격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특히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브랜드 등 상표를 개발하여 시장에서 경쟁하게 됨으로써 주곡의 양적 공급에서 1990년대 이후 고품질미 공급시대로 이전하게 되었다.

### 5.2. 추진내용

- 정부는 1991년 농협 2개소에 RPC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1993년부터 기존 도정업자를 참여시키면서 RPC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농림부 1997: 538). 2004년까지 전국에 400개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농림부 1997: 173).

- RPC를 설치하는 민간에 대하여 정부가 시설자금을 지원하는데 농협에서 설치하는 경우 보조 50%, 용자 30%, 농협이 아닌 민간에게는 용자 80%의 조건으로 지원하였다(농림부 1997: 173).
  - 수확기 농가 벼 수매를 위한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개소당 7억 원(1993년)에서 18억 원(2002년)을 저리 혹은 무이자로 용자 지원하였다(박동규 외 2003: 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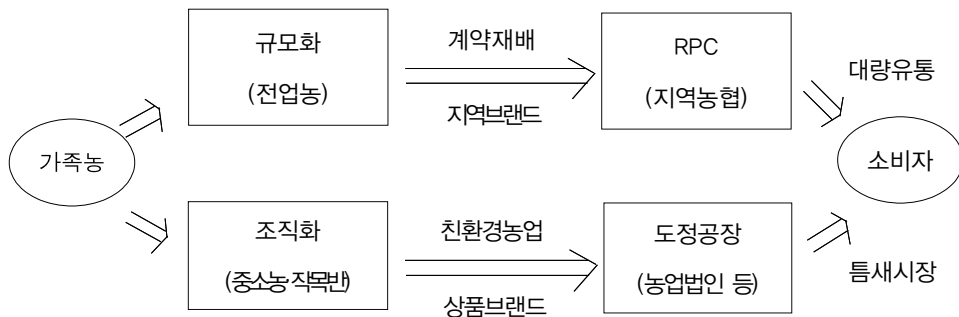
### 5.3. 추진경과 및 성과

- RPC 지원사업이 중단된 2002년 현재 정부가 지원한 RPC는 32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197개소는 농협이, 나머지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1995년부터는 건조저장시설(Dry and Storage Center: DSC) 설치사업도 병행되었다(박동규 외 2003: 7, 9).
- 1991년 지원사업이 시작된 뒤 2년 뒤인 1993년에는 RPC를 통한 미곡 유통량이 3.1%에 불과하였으나 5년 만인 1996년에 220개소의 RPC가 전체 미곡생산량의 36.7%를 가공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하였고 실제로 미곡 유통량의 19.7%를 가공하였다(농림부 1997: 174, 176).
- 수확 후 관리를 위한 비용은 관행적으로 소요되던 비용에 비해 30%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농림부 1997: 176), 쌀 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추가소득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는 품질미를 공급하는 쌀 유통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을 중심으로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균일한 품질의 쌀 생산으로 품질미 생산이 가능해졌다(박동규 외 2003: 16).
- RPC가 소비자의 유통업체나 백화점 등 대량 수요처와 직거래하면서 소

비자들의 품질미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개선되었다.

- 특히 농협은 스스로 다수의 RPC를 보유, 운영하면서 조합원인 농민으로부터 쌀을 구매할 뿐만 아니라 1990년대까지 정부가 쌀을 수매하여 방출하던 것의 일부 분량을 농협이 수매하도록 하면서 RPC를 통한 쌀 가공 및 판매가 확대되는 데 기여하였다(농림부 1997: 174).
- 쌀의 건조와 도정, 포장 등 수확 후 처리와 가공을 담당하면서 규모화된 쌀 전업농과의 계약재배에 의한 쌀 생산, 지역 브랜드 쌀 소비자로의 대량 유통 등 전후방 연계를 강화하였고, 우리나라 쌀 산업 발전모델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림 2-1. 쌀 산업과 경영체의 발전 모형



자료: 김정호(2012: 252).

## 5.4. 문제점 및 함의

- 2002년도에 농협 RPC의 64.5%가 적자를 기록하고 1997년 이래로 부도 처리된 것이 25개소에 이르러(박동규 외 2003: 2)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한 곳이 존재한다.
  - 시설이 과잉 설립되면서 RPC 간 경쟁이 심화되어 경영이 악화되었

- 다. 1개 시군에 2개 이상의 RPC가 있는 곳이 49개소에 이른다(박동규 외 2003: 38). 이 지역에서는 원료곡 적정량 확보가 어렵게 되어 시설 가동률도 낮아지게 되었다.
- 수확기에 조합원인 농민으로부터의 원료곡 매입을 위한 비용지출이 높고 쌀 소비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재고량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박동규 외 2003: 20).
  - 농협이 운영하는 RPC의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RPC보다 적극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농협이 신용사업을 통해 경제사업에서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박동규 외 2003: 22).
- RPC 자체의 수익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독립된 전문경영체제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혹은 생산자단체(한국의 농협과 같은)가 운영하는 RPC는 외부 전문가에게 경영을 위탁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 정부가 RPC를 지원하는 경우 경영 실적, 향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한다.
- RPC의 일관처리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RPC의 부속시설로 DSC를 설치 혹은 확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미질의 일관성 및 고품질 유지를 위하여 여러 농가가 함께 건조를 하여 미질관리를 공동으로 하거나 기존 RPC의 부속시설로 DSC를 설치하도록 한다(박동규 2003: 57).



## 제 3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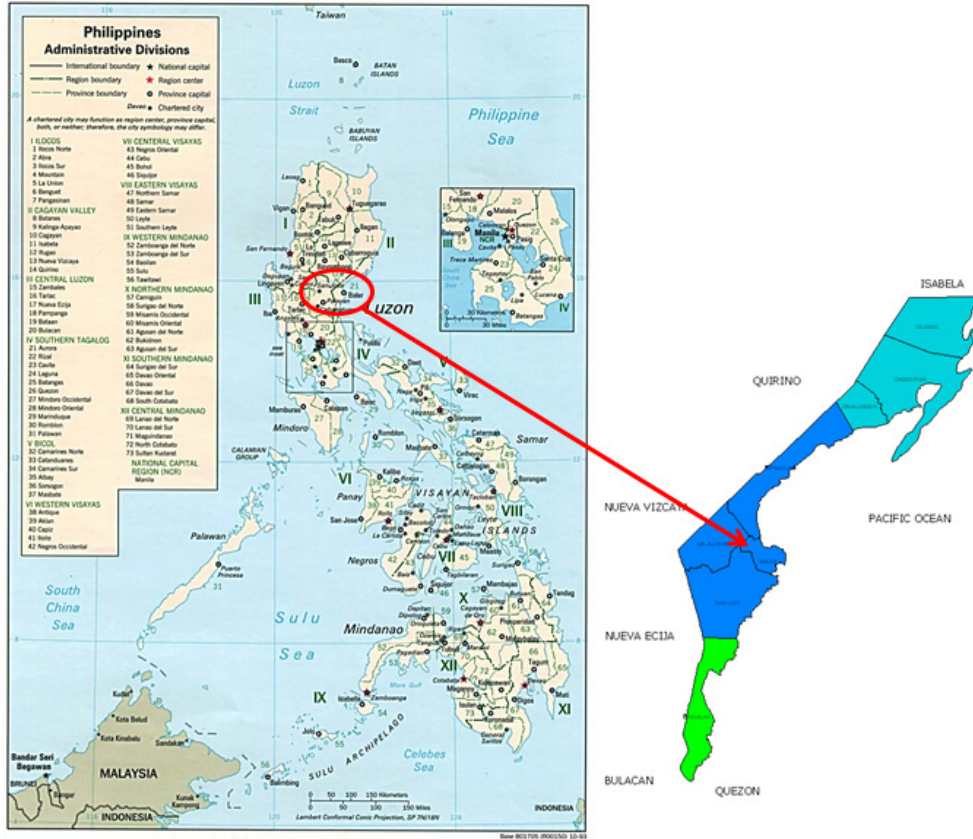
---

### 국제개발협력 사례 : 필리핀 미곡종합처리장(RPC) 건설사업

#### 1. 개요

- 필리핀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사업(Project for Construction of Modern Integrated Rice Processing and Milling Complex in the Philippines)은 한국국제협력단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 동안 필리핀 오로라 주(Aurora Province) 베일러 시(Baler Municipality) 바랑가이 지역(Barangay Reserva)에서 실시한 ODA 사업이다.
- 전체 사업비는 총 260만 달러로 한국이 230만 달러를 무상원조로 제공하고 필리핀이 30만 달러를 부담하여 실시되었다.

그림 3-1. 사업대상지역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08: 1).

- 프로젝트의 개발목표는 농민소득 증대를 통한 기본욕구(basic human needs) 해결에 기여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현대화된 미곡생산기술 및 설비를 갖춘 미곡종합처리장 건축을 통해 미곡 생산에서 판매까지 효율적인 생산관리 시스템 및 영농기계화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농민의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사업 목표를 설정하였다.



## 2. 사업 배경 및 추진 경위

- 2001년 우리나라 기업체인 삼성이 필리핀 내 시설당 3,000ha를 관장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5개소의 건립 제안서를 필리핀 대통령실에 제출한 것을 계기로, 2002년 삼성에서 RPC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필리핀 농지개혁부(DAR)가 RPC 프로젝트 차관심사 요청서를 국가경제개발부(NEDA)에 제출하였다. 2004년에는 상기 RPC 프로젝트의 시범사업(pilot project)으로 필리핀 정부가 KOICA 프로젝트 형 사업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업이 실시되었다(한국국제협력단 2005: 10)
- 필리핀 농업 현황
  - 사전조사 당시인 2003년 기준 필리핀의 농업은 총 GDP의 20%를, 총 고용의 39%를 차지하였으며, 약 3,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필리핀 빈민 중 69%인 2,100만 명이 농업 부문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다.
  - 또한 비료 등 생산 투입요소의 고비용, 과다한 수확량 손실, 토지상속권 이전에 따른 생산 연속성 단절 등의 원인으로 국제경쟁력이 낮고 재배작물의 다변화를 도모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농촌의 높은 실업률 지속, 생산기술력 및 경영부재로 농업 외 부문의 직업 창출 실패, 저조한 환경지속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한국국제협력단 2005: 11).
- 오로라 주 현황
  - 사업지구인 오로라 주는 루손섬 동부 해안에 위치한 지역으로 전체 인구는 약 16만 명이며, 이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인구가 농촌에 거주한다. 이 주는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주요 농산물은 쌀, 코코넛, 커피, 바나나, 근채류 등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05: 13-14).

- 벼농사의 경우 대부분 직파재배를 하고 있으며, 사람이 낫으로 베는 원시적인 수확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원동기로 구동시키는 탈곡기를 사용하여 탈곡을 하고 있었으며, 탈곡 손실량과 미탈곡 곡립이 많아 이를 다시 수거하여 작업하고 있었다.
- 또한 벼를 바닥에 깔아서 천일건조를 하고 있어, 건기에는 과건 및 급건에 의한 품질 손실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우기에는 건조가 불가능하여 물벼 상태로 판매하기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하였다.
- 도정시설 58개소의 연간 도정능력이 전체 벼 생산량의 10%에 불과할 정도로 도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저장 가능량 850톤은 전체 벼 생산량의 1%에 불과하였다(한국국제협력단 2005: 14-18).

### 3. 세부 사업내용 및 경과

- 필리핀 미곡종합처리장(RPC) 건설사업은 2005년 예비조사로부터 2006년 시설 건립 완료까지 2년이 소요되었으며, 2007년부터 시험 가동을 시작했다. 착수부터 사후평가가 실시된 때까지 이루어진 주요 활동은 다음 <표3-1>과 같다.
- 주요 사업내용은 RPC 건축 및 시설 제공(설계, 감리 포함), 농기계 장비 구입(콤바인, 트랙터 등), 전문가 파견(운용, 전기 기계 부문 등), 연수생 초청(RPC 운영요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 한국 측은 RPC 철골구조물 및 사무실, 경비동, 발전실, 창고 및 부속시설 등 RPC 건축,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기자재 공여, 기타 사전 조사 및 평가 등의 활동을 담당하고 관련 예산을 부담하였다.

표 3-1. 필리핀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사업 주요 추진경과

| 일시                      | 내용                                                     |
|-------------------------|--------------------------------------------------------|
| 2004년 10월               | 필리핀 정부, 동 RPC Pilot Project를 2005년 KOICA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요청 |
| 2004년 12월               | 2005년 프로젝트형 사업의 예비사업으로 선정                              |
| 2005년 5월<br>15~21일      | 사전조사 실시                                                |
| 2005년 8월                | 신규 사업으로 선정                                             |
| 2005년 9월<br>11~16일      | 실시협의 실시                                                |
| 2005년 12월               | 일괄수주 용역업체((주)KOCAT) 및 PMC기관(농업공학연구소) 선정, 계약            |
| 2006년 1월                | 사업 착수                                                  |
| 2006년 4월                | 토목 및 건축사업 완료                                           |
| 2006년 7월                | 연수생 초청사업 실시                                            |
| 2006년 8월                | RPC 기자재 설치 시작                                          |
| 2006년 10월               | 중간평가                                                   |
| 2007년 1월 26일            | 준공식                                                    |
| 2007년 1~3월              | 기계 시험 가동                                               |
| 2007년<br>12월 1일~12월 10일 | 종료 평가                                                  |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08: 40).

- 수원국은 부지제공 및 기반조성, 전력선 공급 및 진입로 정비 등 관련 인프라 정비, 파견인력 안전보장, 지원기자재 면세조치 및 관련 행정 지원, 자국 내 운송비용을 부담하였다(한국국제협력단 2008: 35-36). RPC 시설의 주요 설계 기준 및 공여된 영농 기자재는 다음과 같다.

표 3-2. RPC 주요설비의 설계기준 및 공여 기자재

|         |             |                                                                                      |
|---------|-------------|--------------------------------------------------------------------------------------|
| 건축 및 토목 | 부지 면적       | 15,000 $m^2$                                                                         |
|         | 건축 면적       | 1,798 $m^2$ (공장: 1,572 $m^2$ , 사무동: 240 $m^2$ , 발전기 동: 22.4 $m^2$ , 경비동: 7.5 $m^2$ ) |
|         | 건폐율 및 용적률   | 각 11.98%                                                                             |
|         | 건축 구조       | 철골조, 지하 1층 지상 1층                                                                     |
| 규모      | 연간 처리량      | -10,410톤(함수율 24%)<br>-9,200톤(함수율 14%)                                                |
|         | 저장량         | -1,100톤(함수율 16%)                                                                     |
|         | 가공량         | -2.5톤/시간(함수율 14%)                                                                    |
| 조건      | 도정수율        | -60~65% 이상                                                                           |
|         | 도정 중 쇄미 발생률 | -35% 이하                                                                              |
|         | 반입 함수율      | -24%                                                                                 |
|         | 일 최대 반입량    | -100톤/일(함수율 24%)                                                                     |
|         | 반입 능력       | -15톤/시간                                                                              |
| 건조시설    | 순환식 곡물 건조기  | -10톤 용량 X 5대<br>-7.2 KW/대                                                            |
| 저장시설    | 평창고         | -50Kg 포대 기준<br>-1,100톤 평창고                                                           |
| 이송장치    | 건조부         | -15톤 / 시간                                                                            |
|         | 가공 현미부      | -10톤 / 시간                                                                            |
|         | 가공 백미 포장부   | -5톤 / 시간                                                                             |
| 영농기자재   | 콤바인         | -4조식 X 3대                                                                            |
|         | 트랙터         | -70마력 X 2대                                                                           |
|         | 수송트럭        | -4.5톤 X 1대                                                                           |
|         | 지게차         | -1.5톤 X 1대                                                                           |
|         | 컨베이어        | -저장 시설 내 이용 1대                                                                       |
|         | 휴대용 수분 측정기  | -50대                                                                                 |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08: 37).

#### 4. 사업성과

-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은 RPC 건립을 통해 농민의 소득증대라는 목표 달성에 다음의 여섯 가지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한국국제협력단 2008: 61-62).
  - 첫째, 오로라 지역의 시세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수매함으로써 농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고 있었다. 2008년도의 경우 수확 직후의 벼(24% 함수율 기준)의 시세는 11~12페소/kg인데, RPC에서 11.5페소로 수매하고 있으며, 시세가 12페소에서 형성될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통해 가격을 재설정하여 농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돌려준다.
  - 둘째, RPC 트럭이 일정 시간에 방문, 수매하게 될 경우 수송비를 면제해주고, 농민이 직접 벼를 RPC로 운반할 경우 운반비용을 가격으로 보상해준다.
  - 셋째, 건조시설 이용에 따른 소득증대 기회도 발생하였다. 기존에는 노변에서 천일건조를 할 수밖에 없어 이를 관리할 노동력이 필요하였는데, 벼를 RPC에 판매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 넷째, 일반 유통업자와 달리 RPC는 수매용 자루를 무료로 제공함에 따라 농민들의 비용 절감에 기여하였다.
  - 다섯째, 일반 유통업자들은 수매의사를 타진할 때와는 달리 수매 당시 품질을 이유로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RPC에서는 품질 조건만 맞으면 사전에 설정된 가격으로 수매를 하고 있어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 여섯째, RPC는 사전에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수매를 진행하여 농민들이 수확 및 건조 등의 시간을 맞출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수매대금은 기존 관행인 1주일보다 5일 빠른 2일 이내에 현금 또는 수표로 지불하였다.

-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RPC가 자체적으로 ‘RPC 운영 매뉴얼(RPC Operations Manual)’을 개발하여 수매과정, 건조과정, 도정과정, 전기 공급, 품질관리, 보관체계, 마케팅 체계 등에 대한 지침을 발간하였다(한국국제협력단 2008: 59).
- RPC의 설립은 ‘설계-시공-가동’과 ‘관리-자문’을 구분하여 분야별로 전문회사 및 전문가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성공적으로 건축이 완료되었고, 시설의 설치에 대한 사후평가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 RPC 건립 후 오로라 주는 RPC 운영을 통한 수익을 활용하여 주 정부 재정자립에 일부 기여하고, 쌀의 유통과정에 개입하여 가격 안정의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주민들을 위한 고용창출의 기회와 주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 농민들은 수확 후 손실 방지 및 건조, 수매과정을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소비자들 역시 품질 좋은 쌀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 한편으로는 2008년 사후평가 당시 RPC에서 도정된 쌀이 오로라 주 내에서만 판매되고 있어서 아직은 타지역에서의 판매를 통한 시장 확대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08: 59).
- 영농 기계화 구축사업의 경우, 이를 통한 농업 생산력 향상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공여된 기자재의 수량이 제한적이었던 점에 있어 목표 달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고 평가되었다.

<sup>1</sup> 한국국제협력단이 RPC 건립과 RPC 시설의 설치에 대한 초기계획 대비 달성정도를 평가한 설문에서 5점 만점에 각각 3.94와 3.89점을 받았다(한국국제협력단 2008: 58)

- 콤바인과 트랙터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지 정리, 기계식 이앙, 이  
용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함께 도입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려 없이  
기자재 공여가 이루어졌다(한국국제협력단 2008: 60).

## 5. 소결

- 필리핀 미곡종합처리장(RPC) 건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일괄수주 용역(turn-key base)과 PMC 용역으로 구분하여 사업  
을 진행하였다. 일괄수주 용역(공개입찰)의 경우 건축, 기자재 지원,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등을 담당하고, PMC 용역(수의계약)은 농  
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와 RPC 설계 검토, 물품 검수, 적합성 및 기  
자재 설치 검수 등 전문 기술적인 부분을 종합 자문,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사업수행 방식으로 인해 사업의 기술적인 부분의  
관리가 강화되어, 상대적으로 수원국의 사정에 적합하고 우수한 사양  
의 RPC 건축과 기술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 둘째, RPC 시설의 필요성이 높았던 지역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  
하였기 때문이다. 오로라 주의 경우 쌀의 생산량이 많아 자급도가 충  
분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미곡종합처리시설이 없었으며, 기존의 쌀  
유통업자들의 수매 관행에서 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지역에 RPC가 건설됨으로써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농민들의 참여 및 이용률이 높았다는 것이 사업 성공의 원인으로 지  
적된다.
  - 셋째,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RPC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총 28명인데, 이 중 운영책임자(Project Manager), 행정 및 재정책임  
자(Accountant IV)와 부책임자(Project Accountant), 보조회계는 오로

라 주 정부의 공무원이 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었다. 또 오로라 주 정부는 조례 제정과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RPC를 주 정부의 경제사업으로 수용하여 RPC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영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2008년부터는 주 정부에서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1회씩 감사위원회(Commission of Audit)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 넷째, 지방 정부가 RPC를 인수받아 운영하면서 신뢰성이 제고되었다. 주 정부는 농민의 소득증대를 우선시하는 공적 서비스 지향적인 운영을 통해 농민들의 신뢰감을 얻게 되어 성공적인 RPC 운영이 가능하였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면세로 운영되어, 민간 RPC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 한편 필리핀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사업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한국국제협력단 2008: 88).
- 첫째, 건조시설이 석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RPC 쌀의 생산비가 전체 판매금액의 98%를 차지할 정도로 과다하였다. 따라서 왕겨 등의 부산물을 이용한 건조방식의 동시 활용 등 건조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의 도입, 이를 고려한 건축 설계 및 시공이 필요하다.
  - 둘째,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향후 첨단 기계의 고장에 대비한 대처 방안이나 소모품 제공 방법 등이 사전에 설계되어 적시에 실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 셋째, 영농 기자재별로 활용률의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송 및 운반수단인 트럭은 쌀의 수매 과정에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1대밖에 제공되지 않아 수매 시 24시간 운영되었다. 반면, 콤바인, 트랙터의 경우 우기 시 이용이 어렵고 농경지 바닥이 고르지 않으며, 경지 규모가 작아서 활용이 저조하였다. 이런 면을 고려하여 영농 기



- 자재는 수원국의 영농 관행에 적합한 기종과 수량을 적절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넷째, 직원들에 대한 연수교육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시설물의 건립이 완료되기 전에 연수교육이 실시되면서 연수에 참여한 인원 중 2명만이 RPC에 근무하면서 연수교육의 성과를 활용하였다. 건립 종료 후 현지에서 실제 사용방법과 연계하여 현직 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제4 장

---

### 개도국 적용을 위한 착안점

#### 1. 개도국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의 중요성 파악

- 농산물 가공, 특히 소규모 가공산업은 부가가치가 생산자에게 바로 귀속되어 농업소득을 증대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가져다준다. 상품성이 떨어지는 비규격품(등외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노인·여성 노동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농산물의 판매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소비와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정은미 2010: 12).

표 4-1. 농산물가공사업의 의의

| 구 분              | 내 용                                                                                                                                                                                                                                                            |
|------------------|----------------------------------------------------------------------------------------------------------------------------------------------------------------------------------------------------------------------------------------------------------------|
| 농촌경제에의<br>영향     | ·농가소득 증대: 원료농산물 판매 증가로 농업소득 증대,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발생<br>·농산물 생산 및 소득 안정: 계약재배를 통한 생산량, 판매가격 안정, 과잉생산 시 가격 안정<br>·농업구조 조정에 기여: 저부가가치 농업에서 고부가가치 농업자원의 이동<br>·농수산물 유통개선: 산지가공으로 원료 수송비 절감 등 유통비용 감소<br>·수입물로부터 국내 생산물 보호: 수입 가공식품 대체<br>·국내 농산물의 간접수출에 기여: 농산물 수출증대 효과 |
| 일반<br>경제에의<br>영향 | ·고용 창출: 가공업체의 고용확대<br>·국민소득 증대: 가공산업에서의 부가가치 창출<br>·연관산업 발전: 기계, 포장, 저장, 수송, 도소매업 등                                                                                                                                                                            |
| 사회·문화적<br>영향     | ·국민 식생활 편리화<br>·국민건강 증진<br>·전통 식문화 발전적 계승<br>·소비자 기호 충족<br>·식량안보 기여: 농산물의 장기간 비축 가능 효과                                                                                                                                                                         |

자료: 강수기 외(2000: 3-5)에서 정리.

- 강수기 외(2000: 3-5)는 일반적인 농산물 가공사업을 통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영향을 <표 4-1>과 같이 정리하였다.

## 2.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 요인들

- 농산물 가공산업 역시 농산물을 원료로 한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강수기 외 1992: 15-17).

- 생산요소로서 ① 원·부자재, ② 노동력, ③ 토지가 중요하다. 즉 풍부

- 하고 안정적이며 품질과 가격이 양호한 원·부자재 확보, 풍부하고 기술적으로 우수한 노동력의 공급, 저렴한 지가의 용지 공급 등이 중요하다.
- 수송에 따른 비용절감, 정보획득 등을 위해 원료시장 및 제품시장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좋아야 할 것이다.
  - 도로, 통신, 항만, 공업용수, 에너지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하부구조가 중요하며, 정부의 투자가 요구된다.
  - 원·부자재 공급자, 제품 수요처, 관련 서비스업 등 연관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타 조세, 재정 및 금융, 인·허가 및 규제 등과 관련된 정부의 촉진 및 억제정책 등이 중요하다.
- 이동필 외(1993: 158-163)에서는 농산물 가공사업에 착수할 때 고려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표 4-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4-2. 농산물가공업에서의 기본적 고려사항

| 구 분                     | 세부내용                                                                                                                                                                                                                                 |
|-------------------------|--------------------------------------------------------------------------------------------------------------------------------------------------------------------------------------------------------------------------------------|
| 1. 시장조사를 통한<br>목표시장의 파악 | 품질, 포장에서 유사한 제품에 대한 연도별 및 계절별<br>공급과 가격 추세, 대체 가능성<br>자사제품이 점유할 수 있는 시장 규모(market share)<br>파악과 소비자 수요 전망<br>판매방법과 대리점, 이에 수반하는 소요 경비<br>공장 설립, 검사, 위생 요구사항, 제품 품질기준, 상표부착<br>등 관련 제도<br>거래량, 비용, 거래시기 등에 미칠 수 있는 쿼터의 양과<br>수출입 관세 등 |
| 2. 원료 공급가능성<br>검토       |                                                                                                                                                                                                                                      |
| 2-1. 원료<br>공급가능량        | 가능한 한 광범위 지역으로부터 원료 공급<br>생산자와의 계약재배(필요 시 농민에게 기술지원, 선금<br>지급 등)<br>원료생산 과정에 가공업체가 직접 참여                                                                                                                                             |
| 2-2. 원료 품질              | 품종에 대한 시험, 연구에 참여, 목적에 맞는 품종 개발<br>생산자와 계약재배로 대량생산                                                                                                                                                                                   |
| 2-3. 원료조달의<br>계절성       | 다른 시기에 생산되는 농산물도 가공할 수 있는<br>복합가공시설 설치<br>품종대체, 재배방법 개량, 비닐하우스 등으로 수확시기<br>조절<br>평소보다 조기, 만기에 공급하는 원료농산물에 인센티브<br>제공<br>넓은 지역으로부터 원료농산물을 조달                                                                                          |
| 3. 자금의 수요계획과<br>조달방법    | 원부자재 구입, 세금 등 직접, 간접비용 수요추정 및<br>조달계획 수립<br>시설운전자금에 대한 세부 조달계획 수립<br>영세기업의 경우 기업경영과 가계를 분리<br>정책적 지원자금의 적극 활용                                                                                                                        |
| 4. 적절한 기술수준의<br>선택      | 새로운 기술 도입 시 신중                                                                                                                                                                                                                       |

자료: 이동필 외(1993: 158-163)에서 정리.

- 한편, 가공사업을 시행, 운영하는 사업주체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담당할 수 있다. 민간이 담당하는 경우 경영역량에 따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며, 공공기관이 담당하면 공익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운영주체는 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② 지자체와 민간의 합작, ③ 협동조합, ④ 농민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등이 될 수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강수기 외 2000: 22-25).

표 4-3. 운영주체별 유리성과 불리성

|              | 사업성격                         | 유리성                                  | 불리성                                                              | 선택기준                                          |
|--------------|------------------------------|--------------------------------------|------------------------------------------------------------------|-----------------------------------------------|
| 지방자치단체<br>직영 | • 공익성 : 지역경제 발전 유발효과가 뚜렷한 경우 | •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 • 경제성(경영수지) 소홀 가능성<br>전문성 결여,<br>• 행정위주의 사업운영<br>지자체 고유업무 추진에 지장 | • 가공원료를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을 때                        |
| 민관<br>합작     | • 공익성/수익성                    | • 민간의 기술·자본+지자체 행정력, 공신력 활용          | • 지자체의 공익성과 민간의 수익동기 충돌 가능<br>합작 대상 민간자본 유치가 쉽지 않음               | • 공공기관의 신뢰를 요하나 민간의 경영기법이 요구되는 가공사업           |
| 협동<br>조합     | • 수익성/조합원 이익                 | • 협동조합의 시설·자원 공동 활용<br>협동조합의 공동판매 가능 | • 경영의 경직성<br>경영능력의 미흡<br>조합원 이익과 사업체의 경영목표 충돌 가능                 | • 지역의 농업생산구조가 동질적일 때                          |
| 영농<br>법인     | • 참여농민의 수익성                  | • 참여농민의 공동생산, 공동판매 협력<br>보유기술의 활용    | • 경영능력 미흡<br>생산규모의 영세                                            | • 특산품이나 희소원료, 또는 가공기술을 소수 농가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 |

자료: 강수기 외(2000: 25)에서 정리.

### 3.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 모든 개도국이 그렇지는 않지만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의 개도국은 대체로 농업국가가 많아 상대적으로 가공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의 종류와 양이 풍부하다. 그러나 가공산업의 육성을 통한 농업성장 잠재력은 있더라도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기술적 기반은 부족한 것이 대부분 개도국의 현실이다.
  - 기존의 농가공 업체는 규모가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아 지역에서의 고용효과가 높지 않고 신제품 개발 혹은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여력도 부족하다. 캄보디아의 경우 총 3만여 개의 농산업체 중 91%가 자본금 1,000달러 이하인 영세업체라고 한다(장재봉 2013: 260).
  - 생산된 가공농산물의 운송 인프라, 판로 등 유통과 내수, 수출 등 마케팅을 위한 시설, 정보 등이 부족하다.
  -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가공농산물과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취약하다.
- 따라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목을 선택하여 여기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장재봉 2013: 259).
  - 잠재적인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시장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자국 내에서 가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을 통해 장단점을 파악,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여 가공사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캄보디아의 경우 카사바를 주원료로 하는 전분산업을 가공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채택하였다(장재봉 2013: 259). 일본 니가타 현은 해외로부터 밀가루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국내산 쌀 소비량이 줄어들어 식량자급률이 하락하는 것에 대하여 밀가루 소비량의 10%를 쌀가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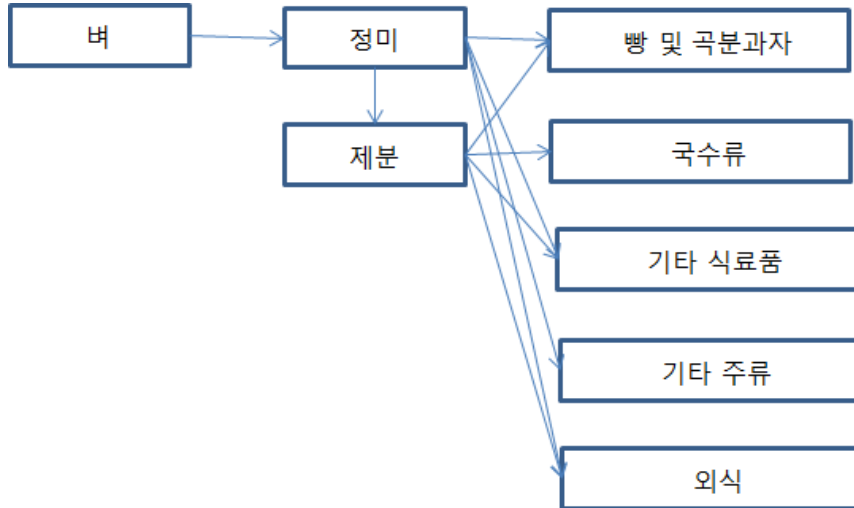


대체하는 사업(이른바 ‘R10 프로젝트’)을 시행하고 이를 위한 쌀가루 제분기술을 개발하였다(국승용 외 2010: 112).

#### 4. 국내 전후방 연계효과의 극대화로 경제·사회적 발전을 선도

- 개도국에서 농산물 가공산업은 전후방 연계효과가 매우 높다. 따라서 이를 통한 경제 및 사회적 발전, 특히 농가와 농촌지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장재봉 2013: 258). 농산물 가공산업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농업 및 2, 3차 산업 등 타부문과의 연계가 확보되어 전후방 연계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공산업의 후방산업은 농민 혹은 농산물 공급업체이다. 이들에게 안정적인 원료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이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지에서의 물류가 발달하지 않은 개도국의 현실로 볼 때 가급적 농산물 공급지가 가까운 농촌에 가공산업이 입지하도록 단지 조성, 세제 및 금융혜택 등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원료공급자뿐만 아니라 포장재, 첨가물 등 가공을 위한 재료와 관련된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 가공산업의 전방산업으로서 이를 재가공 혹은 소비지로의 유통을 담당하는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건강하고 환경에 유익한 유기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 관광 및 레저와 연관된 관광산업의 발달 등 새로운 여건을 활용하여 전방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연계 산업 분야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의 쌀 가공산업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전방산업으로는 정미업, 제분업이 있으며, 이를 통해 빵·과자, 국수, 기타 식료품, 주류, 외식 관련 산업이 연계된다(국승용 외 2010: 제4장).

그림 4-1. 쌀 가공산업의 연계구조



자료: 국승용 외(2010: 25)에서 정리.

-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기술적 수준에 맞는 농산물가공을 통해 단계적으로 가공산업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 완전 가공제품이 기계, 설비 등 장비와 기술 수준, 그리고 유통 등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농가 혹은 마을단위에서 전분이나 과즙과 같은 ‘반가공(semi-processing)’ 혹은 1차 단순가공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장재봉 2013: 259-260, 270).

## 5. 가공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 이렇게 생산된 가공농산물이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유사 혹은 동종의 가공농산물과 경쟁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가격 및 품질경쟁력 이외에도 자국의 원료농산물을 활용하여 자국에서 생산된 가공농산물임을 홍보하는 마케팅이 필요하다.
  - 국가적으로는 해당 지역 내 시장으로부터 국내시장, 해외시장으로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가공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을 수립, 추진하도록 한다.
  - 농가나 마을단위에서 수행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건조, 가공, 포장 등과 자가 품질검사 등을 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설을 지원하거나 ‘농림식품연구소’를 통해 농산물 가공기술의 개발이나 벤처농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정은미 2010: 제4장).
- 지역의 전통·문화적 특성 혹은 특산물과 고유한 가공기술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틈새시장을 노리는 전략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일반적인 가공농산물과 달리 전통 가공농산물은 보다 소규모로 지역 시장을 대상으로 고급화된 특산품을 개발하여 제품화한다(이동필 외 1993: 11).
  - 따라서 일반 농산물 가공업체보다 자본, 기술면에서 제약이 적어 비교적 손쉽게 참여할 수 있고, 수입되는 해외 가공농산물과 차별화된 상품으로서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이동필 외 1993: 22-23).

표 4-4. 전통식품 가공업과 농산물 가공업의 차이

| 구 분  | 전통식품 가공업         | 농산물(식품) 가공업  |
|------|------------------|--------------|
| 원 료  | 국산 농산물           | 국산 또는 수입 농산물 |
| 규 모  | 중, 소규모 및 영세 제조업체 | 중, 대규모       |
| 기술수준 | 전통적, 단순한 기술      | 현대적, 복잡한 기술  |
| 주요시장 | 지역적인 시장          | 전국적인 시장      |
| 제품성격 | 고급품 또는 특산품       | 생활 필수품       |

자료: 이동필 외(1993: 11).

- 한국에서는 전통식품개발사업을 위해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전통식품 명인제도 등을 도입하여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농산물만을 사용한 가공산업을 육성하였다(이동필 1999: 2172).

## 참고 문헌

---

- 강수기·최태동·장종근·곽창근. 1992. 『농산물 가공산업의 지역특화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개발연구원.
- 강수기·장종근·최태동·곽창근·오승용·박용곤·황성혁. 2000. 『한국형 군단위 농산물중 합단순가공공장 모형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개발연구원·농림부.
- 국승용·한재환. 2010. 『쌀 가공산업의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2012. 『가족농 연구 : 농가와 농업경영의 과거·현재·미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부. 1997. 『농정개혁백서』. 농림부.
- 박동규·김용택·박준기. 2003. 『미국종합처리장사업 성과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1999. “농외소득원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찬. 『한국농정 50년사 제2권』. 농림부.
- 이동필·오내원·황의식. 1993. 『전통가공식품 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장재봉. 2013. “캄보디아 농산물 가공산업 연구개발(R&D) 체계 설립.” 『2012 경제협력 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캄보디아』. 기획재정부·KDI.
- 정은미. 2010.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에 관한 지자체 조례(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국제협력단. 2008. 『필리핀 미국종합처리장 건립사업 사후평가 보고서』.
- 한국국제협력단. 2005. 『필리핀 미국종합처리장(RPC) 건립사업 사전조사 결과 보고서』.



---

M131 연구자료-1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심화 연구- 농산물 가공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4. 12.

발 행 2014. 12.

발행인 최세균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59-6110

<http://www.krei.re.kr>

인쇄처 삼신인쇄

02-2285-6477

E-mail: [dnv6477@korea.com](mailto:dnv6477@korea.com)

---

ISBN 978-89-6013-727-1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